본문 : 출애굽기 1 장 1-7 절
제목 : What It Sounds Like.

1.
그리스에 여행을 가시면 공항에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된 Exodus(ἔξοδος) 라는 사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it 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는 밖으로 라는 뜻의 Ex 와 길이라는 뜻의 hodus 가 합쳐진 말입니다. 출구 또는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Shemot 입니다. Shem 이 히브리 말로 이름인데 복수형태가 shemot 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맨 첫글자를 따서 짓습니다. 출애굽기는" Ve'elleh Shemot"로 시작하거든요. "And these are the names"라는 뜻이예요. 왜 출애굽기는 맨 처음 시작을 조상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이 학교의 히스토리 시간에 이름들을 외우는 시간이 있죠. 45 명이나 되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대통령이름 대신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Te-Jeong-Te-Se-Moon-Dan-Se..." 이렇게 27 명의 조선왕들의 첫 자만을 모아서 외웁니다. 출애굽기의 맨 첫 시작을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 민족의 탈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뿌리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백년이 지나고 수천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이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2.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가고 몇 세대가 흘렀습니다. 실은 400 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은 벌써 400 년이나 지난 옛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정착한지 벌써 몇 세대가 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민 역사를 되돌아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제죠. 1903 년부터 하와이 이민이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길어봐야 5-6 세대 정도의 짧은 이민 역사인데도 한민족의 후예들은 미국 땅에서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단순히 한국말을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문제 이상입니다. 굳이 미국에서까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많은 이민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갔던 히브리 민족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화려한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언어와

이집트의 문화가 세계의 기준였죠. 그런 곳에서 히브리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집트 말을 배워야 했을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다고 하는데, 요셉은 이집트 말을 썼습니다.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통역사를 세워놓고 이집트 말로 하면서 형들과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자녀 세대에서는 히브리 말을 왜 굳이 써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되자 이집트에서 먹었던 마늘 양파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리며 불평을 하잖아요. 음식이든 패션이든 어떤 것이든 이집트 것이 최고로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히브리 민족의 후손들은 분명이 이집트 사회 안에서 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들을 겪었을 겁니다.

3.

Diaspora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말이지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였던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상관 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야.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토를 향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의 문화나 언어에 동화되어 버리면 그들을 굳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곳 미네소타에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의 3 대, 4 대가 되면서 독일어나 스웨덴 말을 쓰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의 목사님만 해도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웨덴 말을 쓰셨고, 어머니도 스웨덴 말을 듣고 이해할 정도는 되셨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 미국 문화와 미국 언어에 동화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히브리 민족들의 삶이 어땠을까 상상하기 힘듭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시의 문화나 풍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민자들과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이 이민자로 겪었을 삶에 대해 상상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매기 강이라는 한국계 케나다 이민자의 자녀가 감독한 영화입니다. 매기 강은 1986 년 5 살 때 케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로서 매기 강은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 왔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들을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케이팝 디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Huntrix 라는 이름의 아이돌 걸그룹에는 루미, 미라, 조이라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빨아 먹는 Monster 들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노래로 몬스터들을 몰아 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넘치게 하여 온 세상에 '혼문'이라는 보호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혼문'은 부정적인 것들을 싹 다 몰아내는 보호막입니다. 헌트릭스 이전에도 조상대대로 음악을 통해 몬스터들을 몰아내는 헌터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첫 시작도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 삶은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 근거한다는 메시지를 영화 초반부터 제시하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그래 왔던 것처럼 데몬 헌터스인 헌트릭스가 너무 잘 하니까 지옥의 마왕인 귀마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귀마는 똑같은 전략으로 5 명으로 된 '사자보이스'라는 Boy 그룹을 만듭니다. 이들도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혼문의 보호막을 헐겁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헌트릭스는 마침내 귀마를 이기고 새로운 혼문을 만든다는 단순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4.

이 영화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루미라는 주인공과 루미를 키워준 앞 세대의 데몬헌터스인 셀린과의 갈등입니다. 루미는 몬스터와 몬스터 헌터가 섞여 있는 독특한 아이입니다. 몬스터처럼 가끔 몸에서 문신이 나타나는 아이죠. 실은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키웠던 앞 세대 데몬 헌터스였던 셀린이 루미에게 계속해서 그 문신을 숨기라고 합니다. "그거 숨기면 돼. 걱정하지마. 네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혼문만 완성되면 다 사라질거야. 그때까지 숨기면 돼! 억누르면 돼! 넌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루미를 달래왔습니다. 루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에 그룹멤버인 조이와 미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버리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몬스터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헌트릭스 그룹이 깨져버립니다. 루미는 자기를 키워준 분을 찾아갑니다. 그 둘이 나눈 대화는 디아스포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하는 대화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이민온 디아스포라 자녀들은 이민 온 땅에서 자기들의 집에서 생활하는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피부색과 생김새를 가진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여기에서 사는 것이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이야 한국 문화도 많이 달라졌지만 1970 년대와 80 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당시의 한국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당시에는 어른들은 하늘이던 시대였습니다. 수업시간이나 예배시간에 모자를 쓴다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식탁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니 집에만 가면 아이들은 갑갑합니다. 백인 친구인 톰이나 제임스네 집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걔네 부모님은 나이스해 보입니다.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힘들어 보이니 놀아달라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한편으로 부모가 나를 위해 고생한다는 것은 알기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지요. 부모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민자로 힘들게 이곳에 정착했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해해 줄 사람들은 동료 이민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 세대 정도 오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5.

루미와 그를 키워준 셀린이란 분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보면 너는 잘못 되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 했어."

"가리라면서요. 숨기라면서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숨기자!"

"더 이상 안 숨겨요.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의 본질이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왜 못 보세요?저를 사랑할 수는 없나요?"

"사랑해!"

"제 전부를요." 하는 순간 '웅~'하면서 땅이 진동하며 울립니다.

"이래서 숨기라고 한 거야. 우리는 결점과 두려움을 꼭꼭 숨겨야 해. 그래야만 혼문을 지킬 수 있어."

"제가 지켜야 할 혼문이 이런 것이라면 파괴 되는 것이 낫겠어요. " 이러면서 루미가 떠나버립니다.

이 대화는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한 번 정도는 있을 법한 대화입니다.
"너 결국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티내지 마. 숨겨. 결국 잘 될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거야."
"숨기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못 숨기겠어요.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고 나는 이게 좋은데 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야.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 전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야죠."
"아니 지켜야 된다니까? 혼문이야 임마. 몰라?"
"나는 그런 혼문이라면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것이 낫겠어요." 하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루미가 데몬의 모습을 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귀마인 이병헌이 비웃으며 말하지요. "그 꼴로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드디어 모두가 니 진짜 모습을 알게 됐군. 혼문은 없다."
루미는 귀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문은 없지. 우리가 새로 만들거야." 이것이 케데헌의 주제입니다. 기존 이민 세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이곳에서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 반쪽은 한국인이고 반쪽은 미국인이야. 어쩌라고? 내 정체성이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걸 어쩌라고? 그래도 나는 나야." 이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What It Sounds Like."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진실 뿐이야. 나라는 존재를 말해 줄 증거, 나의 가장 깊은 심연, 부끄러운 모양, 나조차 알 수 없는 것들 나도 고치려 했고 싸우려 했어. 머리는 뒤엉켰고 마음은 둘로 갈라졌어. 내 거짓말들은 서로 충돌했고 왜 네가 내 편일거라는 믿음은 못 가졌는지 몰라. 나는 산산 조각 났고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깨진 유리 조각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봐. 상처는 내 일부야. 어둠과 조화 속에 살아 있지. 거짓 없는 내 목소리. 이게 바로 나의 소리야."
이들은 그들이 가진 정체성을 놓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몬스터인 사자 보이스까지 껴 안으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합니다. 귀마가 그런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과거의 잘못이 있으니 너는 절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넌 안 돼!" 하지만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헌트릭스는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혼문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믹스된 존재이지만, 꿈과 희망을 주는노래를 통해 세상을 바꿔 가겠다는 것이 케데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6.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분명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이런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 안으시고, 우리의 과거 잘못들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긍정의 에너지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혼문을 만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히브리 민족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소명과 정체성을 만 천하에 드러낼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집트에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너의 깨어진 과거와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